

비정의, 보복적 정의, 회복적 정의 조건에서 불공평함의 지각, 부정적 정서, 반추의 차이*

신 재 은 현 명 호 박 지 선†
중앙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가해사건에 대한 비정의, 보복적 정의 및 회복적 정의 조건에 따라서 가해사건의 피해자가 느끼는 정의 회복의 정도인 불공평함의 지각, 부정적 정서, 반추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대학생 55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이 피해자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하여 가상적인 경제적 피해상황을 구성하였다. 정의 조건에 따른 불공평함의 지각, 부정적 정서, 반추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적 정의 조건은 다른 정의 조건보다 부정적 정서와 반추를 더 적게 지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각 정의 조건을 구분하여 보복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경험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피해상황, 보복적 정의, 회복적 정의, 불공평함의 지각, 부정적 정서, 반추

* 이 논문은 신재은(2011)의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정리한 것임.

† 교신저자: 박지선, (609-757) 부산시 금정구 오륜대로 57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Tel: 051-510-0676, E-mail: lala@cup.ac.kr.

가해사건은 가해자가 불법적으로 지위와 힘을 가진 것으로 (Murphy & Hampton, 1988), 가해사건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손상은 피해자 자신의 정신 건강과 대인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수정, 강윤희, 2002). 가해사건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공평함 혹은 정의(justice)의 균형을 깨뜨리므로 가해사건을 경험한 대부분의 피해자는 무너진 공평함의 균형이 회복되기를 바란다(Worthington, 2009). 가해사건으로 인한 불공평함을 다루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가해자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Wenzel, Okimoto, Feather, & Platow, 2008). 처벌은 가해자에게 그들이 행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Strelan, Feather, & McKee, 2008) 가해자의 힘과 지위를 깎아내리고,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법과 규칙을 회복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무너진 공평함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Vidmar, 2000). 이렇듯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무너진 불공평함을 회복하기 위해 처벌을 사용하는 것을 보복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라 한다. 그러나 보복적 정의 맥락에서는 처벌에만 지나친 관심을 기울여 피해자의 권리 그리고 가해사건에 대한 치유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Worthington, 2009).

최근 들어 가해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이해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시되면서 피해자 중심의 정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피해자를 정의 회복 과정의 중심에 두려는 시도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라는 절차로 구체화되었다. Brithwaite(1989)는 회복적 정의를 “범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관련 당사자가 한 곳에 모여서 범죄로 야기된 손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Marshall(2003)은 “당해 범죄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범죄의 결과와 그것이 장래에 미칠 의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공동으로 모여 해결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회복적

정의에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욕구, 권리 그리고 존엄성에 관심을 가지고 (Amour & Umbreit, 2005; Bazemore, 1998; Brithwaite, 1989; Cohen, 2001), 정의회복을 손해의 회복, 화해, 안심할 수 있는 상태의 촉진 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Zehr, 1990). 보복적 정의의 핵심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라면, 회복적 정의의 핵심은 대화과정이다. 가해사건과 관련된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가 대화과정에 참여하여 가해사건이 미친 영향을 이해함으로 가해자는 진정으로 사회와 개인 간의 규칙 및 가치를 이해하고 책임을 느끼며 피해자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회한을 표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최소한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보복적 정의와는 달리 회복적 정의에서는 피해자-가해자 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피해자-가해자 조정이란 분쟁해결과 피해배상을 결합시킨 것으로 당사자가 서로 만나 피해 사실과 상호감정을 대화로 논의하며 전문적인 조정자가 제 3자의 입장에서 화해를 하도록 조언하는 것이다(Kurki, 2000). 조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할 기회를 가지게 되고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질문할 기회, 그리고 그 가해사건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된다(Umbreit, 2001). 일방적인 처벌이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결정하고 보상을 유도해 내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가해사건에 대한 심리적 종결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된다(Worthington, 2009). 피해자는 가해자의 지위가 낮아지고 힘이 약화됨을 목격하는 조정 과정에서 지각된 불공평함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보복적 정의에서도 정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불공평함의 지각이 줄어들 수 있지만 보복적 정의 맥락에서보다 회복적 정의 맥락에서 불공

평함의 지각이 더 줄어들 것이다. 그 이유는 보복적 정의 맥락에서는 일방적으로 처벌이 가해자에게 주어짐으로 공평함을 회복하는 반면, 회복적 정의 맥락에서는 공평함을 회복하는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언의 기회를 가지며 가해자의 힘과 지위가 낮아지는 것을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의사 결정과정에서 그 과정을 보고 들을 기회가 있으며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개인의 입장과 의사가 고려된다는 것은 정의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Lind, Kanfer, & Earley, 1990).

불공평함으로부터 기인한 분노나 다른 부정적인 정서는 정서적 비용서(emotional unforgiveness)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서적 비용서는 부당하다고 느끼는 감정, 정당한 복수나 회복의 요구를 포함하는 정서적, 인지적 구성개념으로 원한, 슬픔, 수치심과 고통 등의 다양한 감정이 융합되어 있다. 비용서는 차가운 정서의 복합체로 정의되며 적개심, 회한, 씩씩함 등을 포함한다. 처음 가해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피해자는 분노라는 뜨거운 정서로 반응한다. 부정적인 정서들은 서로 뒤섞여 정도가 강할 때에는 건강에까지 영향을 준다(Worthington, 2006). 또한 가해사건과 가해사건의 결과에 대해 계속해서 반추할 때 이 뜨거운 정서는 비용서라는 차가운 정서의 복합체로 유착된다(Worthington, 2000). 반추는 부정적인 기분에 대한 반응으로 반복적이고 되풀이되는 생각으로(Rippere, 1977), 현재의 상태와 바라는 목표 간의 불일치로 인해 유발되는 되풀이되는 사고이다(Martin & Tesser, 1996). 반추는 가해사건에 대한 첫 번째 정서적 반응인 가해자와 상황에 대한 뜨거운 정서인 분노를 씩씩함과 복수심에 가득 찬 것으로 변형시키는 기제이며 이러한 정서적 반응이 비용서를 촉진하게 된다(Worthington & Wade, 1999). 반추는 가해사건으로부터 기인하는 부정적인 기분상태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가해사건에 대한 반추와 정서적 비용서를 줄이는 방법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의가 충족되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보복적 정의에서는 처벌의 사용을 통해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아 고통을 받는 것을 봄으로써 피해자의 정서적 비용서는 감소되고 감정적인 회복을 경험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처벌의 부정적 감정 해소 효과(catharsis)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심리적 종결과 회복된 기분을 경험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부정적 기분이 증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Carlsmith, Wilson과 Gilbert (2008)의 연구에 따르면 처벌의 해소적 효과에 대한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처벌 조건의 사람들이 가해자에 대한 반추를 계속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해사건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의 해소는 보복적 정의 과정에서의 처벌을 통해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해자와 마주할 기회를 통한 가해자의 후회의 표현과 사고의 전달이 가능한 회복적 정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감정적 회복을 유도할 수 있다(Bazemore, 1998; Strang, 2002). Umbreit(1994)의 연구에서 피해자-가해자 조정에 참가한 90%의 참가자가 과정에 대한 만족함을 보고하였으며, 조정 이전과 이후의 기분을 비교하였을 때 조정 과정 이후에 피해자들은 기분이 덜 상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이 덜해졌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해사건에 대한 비정의, 보복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조건에 따라서 가해사건의 피해자가 느끼는 정의 회복 정도인 불공평함의 지각, 부정적 정서, 반추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전의 연구는 회복적 정의의 장점을 개념적으로 고찰하거나 보복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개념적으로 비교하였다(박상식, 이창호, 2008; Wenzel et al., 2008). 국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느끼는 공감이나 가해자의 사과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정의의 개념을 적용해 탐색한 연구는 없었다(김기

범, 임효진, 2006). 보복적 정의, 회복적 정의 그리고 용서와의 관계를 탐색한 외국의 연구의 경우 주로 시나리오 형태로 가해사건을 가정하여 응답자가 시나리오를 읽고 자기보고식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수행되었다(Strelan, Feather, & McKee, 2008; Witvliet, Worthington, Root, Sato, Ludwig, & Exline, 2008).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경제적 피해상황에 놓인 참가자가 정의 조건에 따라 인지적, 정서적 반응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여 정의 조건이 피해회복에 영향을 주는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정의 조건에 따라 피해자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의 비교를 통해 피해자에게 초점을 돌려 대안적 정의 체계인 회복적 정의의 장점을 파악하고 가해사건으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의의 적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대한민국 서울 소재 C 대학의 학생 55명이 참여하였다. 실험 절차를 거쳐 이 중에서 실험에 무성의하게 참여하였거나 무성의한 태도로 질문에 답한 6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에는 총 49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이 중 남자는 13명(26.5%), 여자는 36명(73.5%)이었고, 연령분포는 만 18세에서 28세까지로 평균연령은 만 21.59(SD=2.38)였다.

측정도구

불공평함의 지각

불공평함의 지각에 대한 피험자의 응답방식은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Keel(1948)이 통증척도로 처음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응용하여 100mm의 직선을 그은 뒤 양 쪽에 ‘상황에 대해 전혀 불공평함을 느끼지 못하였다’와 ‘완전한 불공평함을 느꼈다’를 적고 실험 참여자로 하여금 현재 자신의 주관적인 불공평 지각 정도를 표시하도록 했다. 4개의 문항으로 점수의 범위는 0~100점이며, 평균이 100에 가까울수록 불공평함의 지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0.83이었다.

부정적 정서

정의 조건에 따른 실험 후 실험 참가자의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전소현, 권호인, 권정혜(2010)가 사용한 기분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에서는 기존의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척도들이 상대적 기분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노에 대한 상대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형용사로 이루어 졌다. 이 기분질문지는 긍정적 기분을 나타내는 형용사 7개와 분노기분을 나타내는 형용사 7개로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분노 기분 질문지만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부정적 정서가 느껴지는 정도를 7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4였다.

상황 특정적 반추

실험 참가자의 가해사건에 대한 반추를 측정하기 위해 Wade, Vogel, Liao와 Goldman(2008)이 개발한 대인 관계적 가해상황에 대한 반추척도(Rumination About an Interpersonal Offense Scale: RIO)를 한국어로 번안해 사용하였다. 임상심리 전공 석사생이 1차 번역본을 구성하였고 영문학 전공자의 확인을 거쳐 최종 번역 안을 확정하였다. RIO 척도는 특정한 가해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인지적 재활성화인 상황-특정적 반추(state-specific rumination)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반추적 사고의 다양한 하위 구성 개념보다 반추의 일차원적인 구성요소를 측정한다. RIO 척도는 참가자에게 지난 7일 동안 일어났던

타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건을 떠올리도록 한 후에 총 6개의 문항에서 자신의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상황임을 감안하여 실험 상황에서의 경험에 대한 반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해 사용하였으며 ‘내가 당한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8이었다.

실험절차

참가자들이 피해자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가상의 경제적 피해상황을 구성했다. 가상의 상대방과 카드를 선택하는 게임에 참가하게 된 참가자는 다른 2개의 카드 중 가상의 상대방과 같은 하나의 카드를 선택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을 듣는다. 이는 미리 프로그래밍된 것으로 참가자가 어떤 카드를 선택하는 것과 관계없이 총 20번의 시행 중 5번의 일치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가상의 상대방과 같이 번 돈은 공동자금이 되며 총 금액은 20,000원이다. 공동자금을 분배하기 위해서 제시된 3장의 카드 중 더 큰 수를 가진 카드를 뽑는 사람이 분배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미리 프로그램 되어있는 것으로서 항상 가상의 상대방이 분배 권리를 가지게 된다. 가상의 상대방은 90:10으로 공동자금을 분배하여 총 금액 중 참가자가 2,000원을 가지게 되어 불공평함을 지각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참가자에게 가상의 경제적 피해상황을 경험하게 한 후 3가지 정의 조건(비정의, 보복적 정의, 회복적 정의)에 따라 참가자를 무선 배정했다. 비정의 조건에서는 피해상황이 끝난 후 중립적인 질문지(Young Mania Rating Scale: YMRS)를 작성하게 한 후 실험자가 직접 분배된 실제 돈을 전달하고 불공평함의 지각, 부정적 정서, 상황 특정적 반추의 정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중립적인 질문지는 작성하는데 약 5분이 소요되는 성격에 대한 설문

지로서 반추를 측정하기 위한 시간간격을 만들기 위해 3집단에 동일하게 실시되었다.

보복적 정의 조건에서는 피해상황이 끝난 후 중립적인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실험자와 채팅을 통해 불공평한 분배를 한 가상적 참가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 실험자는 가상적 상대방이 불공평한 분배를 했기 때문에 가상적 상대방은 그에게 할당된 90%의 돈을 가져갈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이 돈은 참가자가 가져가게 되는 돈보다 더 적은 금액인 1,800원이다. 실험자가 참가자에게 할당된 돈(2000원)을 전달하고 불공평함의 지각, 부정적 정서, 상황 특정적 반추의 정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회복적 정의 조건에서는 피해상황 후 중립적인 질문지를 측정한 다음 실험자와 채팅을 통해 가상적 상대방에 대한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듣는다. 실험자가 참가자에게 할당된 돈을 전달하고 그 후 가상적 상대방과의 문자 채팅의 기회가 주어졌다. 가상적 상대방의 역할은 잘 훈련된 실험 보조자가 수행하였다. 실험보조자는 불공평한 분배를 한 것에 대해서 의도성이 없었다는 사과의 메시지를 참가자에게 전달했다. 실험보조자와 참가자와 채팅이 끝나면 불공평함의 지각, 부정적 정서, 상황 특정적 반추의 정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모든 자료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SPSS WIN 18.0을 사용하였다. 먼저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각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종속변인이 2개 이상이며 종속변인인 불공평함의 간극, 부정적 정서, 및 반추 간의 상호상관이 가정됨에 따라 다변량 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변인에 대하여 Tukey HSD를 사용한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참고). 불공평함의 지각과 부정적 정서는 $r=.412$, 불공평함의 지각과 반추는 $r=.395$, 그리고 부정적 정서와 반추는 $r=.666$ 으로 나타났다($p < .01$). 정의 조건에 따른 종속변인(불공평함의 지각, 부정적 정서, 반추)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표 2 참고),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종속변수에 대해 다변량 분석(MANOVA)을 통하여 독립변수의 정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3 참고).

비정의 조건, 보복적 정의 조건, 그리고 회복적 정의 조건의 차이가 종속변인인 불공평함의 지각, 부정적 정서, 반추의 선형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다변량 분석(MANOVA) 결과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표 1. 불공평함의 지각, 부정적 정서, 반추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

종속변인	불공평함의 지각	부정적 정서	반추	평균	표준편차
불공평함의 지각	-	.413**	.397**	63.70	23.87
부정적 정서		-	.666**	2.18	1.26
반추			-	1.98	.85

** $p < .01$

표 2. 정의 조건에 따른 불공평함의 지각, 부정적 정서, 반추의 평균과 표준편차

종속변인	비정의 조건 (N=16)	보복적정의 조건 (N=16)	회복적정의 조건 (N=17)
불공평함의 지각	69.28(20.23)	67.84(22.16)	54.57(26.98)
부정적 정서	2.60(1.28)	2.43(1.49)	1.55(.71)
반추	2.13(.86)	2.42(.81)	1.43(.55)

표 3. 정의 조건에 따른 불공평함의 지각, 부정적 정서, 반추의 변량분석

변량원	전체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불공평함의 지각	2189.104	2	1094.552	2.001
오차	25161.939	46	546.999	
전체	27351.043	48		
부정적 정서	10.627	2	5.313	3.674*
오차	66.525	46	1.446	
전체	77.151	48		
반추	8.699	2	4.350	7.626**
오차	26.236	46	.570	
전체	34.935	48		

* $p < .05$, ** $p < .01$

46) = 2.738, $p < .05$. 정의 조건에 따른 불공평함의 지각에서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2, 46) = 2.001$, $p < 1.47$. 다만 표 2의 평균값을 살펴볼 때 회복적 정의 조건에서 다른 실험조건과의 차별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46)=3.674$, $p < .05$. Tukey HSD 사후검증 한 결과 회복적 정의 집단은 비정의 집단에 비해 부정적 정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반추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46)=7.626$, $p < .01$. 사후 검증 결과에서 회복적 정의 집단이 비정의 집단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5$), 보복적 정의 집단과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이는 회복적 정의 조건에서 다른 정의 조건에서보다 반추 정도가 더 낮음을 보여준다.

논 의

가해사건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공평함과 불쾌감을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불공평함과 불쾌함의 경험은 공평함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가해상황에 대하여 정의의 회복의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비정의 조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하여 정의의 회복을 이루는 보복적 정의 조건,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회복적 정의 조건으로 나누어 각 정의 조건에 따라 피해자가 느끼는 불공평함의 지각, 부정적 정서, 반추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불공평함의 지각, 부정적 정서, 반추는 서로간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불공평함을 크게 지각할수록 부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고 반추를 더 많이 하므로 이 세 가지 변인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VAS로 측정된 불공평함의 지각은 100점에 가까울수록 불공평함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불공평함의 지각 평균값은 63.7점으로 실험상황은 불공평함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치 조건 간의 불공평함의 지각의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실험의 설계 상 피해자의 경험이 일시적인 채팅 상황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회복적 정의 조건에서 피해자-가해자 조정 상황을 구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본 실험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고 보상을 합의할 수 있는 기회는 갖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불공평함의 지각을 쉽게 회복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다른 두 정의 조건에 비해 회복적 정의 조건에서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회복적 정의 조건의 차별성을 시사하므로 향후 보다 정교한 실험절차와 다양한 상황을 적용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여 정의 조건에 따른 불공평함의 지각의 차이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처치 조건에 따라 부정적 정서에 차이가 있었다. 회복적 정의 조건은 비정의 조건보다 부정적 정서의 정도가 더 적게 보고되었다. 반면 보복적 정의 조건은 비정의 조건과 부정적 정서의 차이가 없었다. 보복적 정의 조건과 비정의 조건에서 부정적 정서의 차이가 없음을 Carlsmith, Wilson, 및 Gilbert(2008)의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처벌만으로 피해자의 부정적 정서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회복적 정의의 특성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데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비정의 조건에서보다 회복적 정의 조건에서 부정적 정서를 더 적게 보고한 것은 회복적 정의 조건에서 가해자의 사과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하면 피해자는 이에 응하는 용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용서는 보복하고자 하는 욕

구, 회피하려는 동기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는 심리적인 기능을 포함한다(McCullough, Worthington, Jr., & Rachal, 1997; Wade & Worthington, Jr., 2002). 김기범, 임효진(2006)의 연구에서 사과를 받았다고 응답한 집단이 그렇지 않았다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 용서함으로써 마음이 더 많이 풀어지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사과를 받지 않은 집단은 사과를 받은 집단에 비해 회피 및 보복 동기가 더 높았고 용서가 아닌 단순한 포기, 회피 등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회복적 정의 과정은 사과의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의 회복 과정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 가해자의 처벌이 능사가 아님을 이해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 과정이 이루어 질 때 피해자는 심리적인 안정 뿐 아니라 관계 개선 및 인간적 성숙으로 이어질 것이다.

회복적 정의와 보복적 정의 간의 부정적 정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다소 차이가 있었다. 두 정의 조건에서 처벌이 주어지는 것은 동일하다. 그 후 회복적 정의 조건에서는 피해자-가해자 조정 상황을 구성하기 위해 채팅창을 통해 가해자는 실험참가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를 전달한다. 회복적 정의 조건에서 참가자가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시간은 채팅상황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짧다. 사과메시지는 의도성이 없었음을 설명하는 단순한 형태로 주어진다. 이러한 실험 상황적 한계가 회복적 정의의 피해자-가해자 조정의 구현을 현실적으로 이뤄내지 못하여 회복적 정의와 보복적 정의 간의 부정적 정서 지각 정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복적 정의 상황과 회복적 정의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처치 조건에 따라 반추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다른 정의 조건에서보다 회복적 정의 조건에서 반추 정도가 낮았다. 즉 회복적 정의

조건에서 피해를 당한 상황과 가해자에 대해 덜 생각한다 할 수 있다. 보복적 정의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처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의 조건과 비교해 볼 때 반추 정도의 차이가 없는 것은 불공평한 상황을 공평함에 가깝게 만드는 금전적인 처벌의 영향이 개인이 인식한 바라는 목표와 현실간의 불일치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Martin et al., 1996). 그에 비해 회복적 정의에서는 처벌에 더하여 현재 일어난 상황에 대해 직접 대화에 참여하여 가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정의의 균형이 회복되는 것을 느낌으로써 반추가 감소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추는 용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써 용서와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McCullough, Bellah, Kilpatrick, & Johnson, 2001). Sukhodilsky, Golub과 Cromwell (2001)은 ‘분노 반추’라는 구별된 변인을 제시하였다. 분노 반추는 용서를 저해하는 장벽(barrier)으로써 피해를 준 상황과 가해자를 계속해서 떠올리며 피해 사건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지(letting go) 못하게 한다. 이는 개인을 스트레스인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Worthington, Berry, & Parrott, 2001). 회복적 정의 상황에서 반추 정도의 감소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한 기억과 느낌에서 벗어나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게 만드는 내적인 장벽을 허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의 조건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상황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 정서, 그리고 반추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기존 연구는 정의에 대한 개념적 탐색이나 피해상황을 가상적으로 설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각 정의 조건을 구분하여 보복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경험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가해상황의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정의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해상황의 피해자는 각 정의 조건 중 회복적 정의 조건에서 보다 더 적응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와 치유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부과하는 보복적 정의의 적용보다는 회복적 정의가 더욱 활발히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험 상황에 참가자가 직접 피해자의 입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최대한 몰입도를 높여 불공평함의 지각, 부정적 정서 및 반추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피해상황은 가해자가 불공평한 분배를 책정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상황에만 한정되어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피해상황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황과 피해 심각도 등을 고려하여 정의 조건에 따른 피해자의 반응양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표집 크기가 작았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피해자의 성비 불균형이 커 성차에 따라 있을지 모르는 차이가 간파되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대상으로 성비를 균형 있게 표집 하여 외적 타당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실험 집단 간의 불공평함의 지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불공평함의 지각을 측정하는 문항의 수가 적었고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사실에 근거하여 응답하도록 문항이 이루어져 불공평함의 지각을 다각도로 접근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불공평함의 지각의 총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지 뿐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모두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지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가 실험 상황에서 획득한 자금을 가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분배를 받는 것으로 피해 상황을 설

정하여 불공평함의 지각을 실제적으로 크게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 피험자의 실제적인 금전적 손실이 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실험이 이루어진다면 실험에 대한 몰입도가 향상되어 보다 분명한 불공평함의 지각과 각 조건 간의 불공평함의 지각 차이가 명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반추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시간 간격이 너무 짧아 반추의 본래의 의미를 잘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둔 후 반추 정도를 측정하도록 한다면 의미적으로도 타당하며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가상적인 실험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인이 실제 삶에서 경험한 피해상황을 토대로 응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의 피해자의 반응과 완전히 같다고는 볼 수 없다. 실제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정의 조건과 관련하여 복잡한 변인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추후에는 실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기범, 임효진 (2006). 대인관계 용서의 심리적 과정 탐색: 공감과 사과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2), 19-33.
- 이수정, 강윤희 (2002). 범죄자 피해보상 제도에 대한 제언: 정신, 심리적 지원체제를 중심으로. *피해자학 연구*, 10(2), 189-208.
- 전소현, 권호인, 권정혜 (2010). 분노에 대한 반추, 주의 분산 및 긍정적 재평가가 기분과 혈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367-386.
- Armour, M. P., & Umbreit, M. S. (2005). The paradox of forgiveness. In E. L. Worthington, Jr. (Ed.), *Handbook of forgiveness* (pp.491-503).

- New York: Routledge.
- Bazemore, G. (1998). Restorative justice and earned redemption: Communities, victims, and offender reintegr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1, 768-813.
- Braithwaite, J. (1989).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Sydney, Austral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lsmith, K. M., Wilson, T. D., & Gilbert, D. T. (2008). The paradoxical consequences of reve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6), 1316-1324.
- Cohen, R. L. (2001). Provocations of restorative justice. *Social Justice Research*, 14, 09-232.
- Keele, K. D. (1948). The pain chart. *The Lancet*, 2, 6-8.
- Kurki, L. (2000). Restorative and community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Crime and Just*, 27, 235.
- Lind, E. A., Kanfer, R., & Earley, P. C. (1990). Voice, control, and procedural justice: Instrumental and non-instrumental concerns in fairness judg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52-959.
- Marshall, T. F. (2003). Restorative justice: An overview. In G. Johnstone (Ed.), *A restorative justice reader: Texts, sources, and context*(pp. 28-45), Willan Publishing, Portland, OR.
- Martin, L. L., & Tesser, A. (1996). Some ruminative thoughts. In R. S. Wyer (Ed.), *Ruminative thoughts: Advances in social cognition* (Vol. 9, pp. 1 - 47). Mahwah, NJ: Erlbaum.
- McCullough, M. E., Worthington, E. L. Jr., & Rachal, K. C. (1997).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2), 321-336.
- McCullough, M. E., Bellah, C. G., Kilpatrick, S. D., & Johnson, J. L. (2001). Vengefulness: Relationships with forgiveness, rumination, well-being, and big f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601-610.
- Murphy, J. G., & Hampton, J. (1988). *Forgiveness and Mer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Rippere, V. (1977). "What is the thing to do when you're feeling depressed?": A pilot stud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15, 185-191.
- Strang, H. (2002). *Repair and revenge: Victims and restorative justice*. Oxford: Clarendon Press.
- Strelan, P., Feather N. T., & McKee, I. (2008). Justice and forgiveness: Experimental evidence for compati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 1538-1544.
- Sukhodilsky, D. G., Golub, A., & Cromwell, E. N.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nger rumination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 687-700.
- Umbreit, M. S. (1994). *Victim meets offender: The impact of restorative justice and mediation*. Monsey, New York: Criminal Justice Press.
- Umbreit, M. S. (2001). *The handbook of victim offender mediation: An essential guide to practice and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 Vidmar, N. (2000). Retribution and revenge. In J. Sanders & V. L. Hamilton (Eds.), *Handbook of justice research in law* (pp. 31-63). New York: Kluwer-Plenum.
- Wade, N. G., & Worthington, E. L. Jr. (2002). Overcoming interpersonal offenses: Is forgiveness the only way to deal with unforg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1, 343-353.
- Wade, N. G., Vogel, D. L., Liao, K., & Goldman, D. (2008). Measuring state-specific rumination: Development of the Rumination about an Interpersonal Offense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 419-426.
- Wenzel, M., Okimoto, T. G., Feather, N. T., & Platow, M. J. (2008). Retributive and restorative justice. *Law and Human Behavior*, 32(5), 375-389.
- Witvliet, V. O., Worthington, E. L. Jr., Root, M.,

- Sato, F., Ludwig, E., & Exline, J. (2008). Retributive justice, restorative justice, and forgiveness: An experimental psychology analysi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 10-25.
- Worthington, E. L. Jr. (2000). Is there a place for forgiveness in the justice system? *Fordham Urban Law Journal, 27*, 1721-1734.
- Worthington, E. L. Jr. (2006).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Theory and application*. New York: Brunner Routledge.
- Worthington, E. L. Jr. (2009). *A just forgiveness: Responsible healing without excusing injustice*. IL: Inter Varsity Press.
- Worthington, E. L. Jr., & Wade, N. G. (1999). The social psychology of unforgiveness and forgiveness and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 385-418.
- Worthington, E. L. Jr., Berry, J. W., & Parrot, L. (2001). Unforgiveness, forgiveness, religion, and health. In T. G. Plante & A. C. Sherman (Eds.), *Faith and Health: Psychological Perspectives*(pp. 107-138). New York: Guilford.
- Zehr, H. (1990). *Changing Lenses: A New Focus for Crime and Justice*. Scottsdale, PA: Herald Press.

1 차원고접수 : 2014. 07. 07.

수정원고접수 : 2014. 08. 16.

최종게재결정 : 2014. 08. 17.

Difference in Perception of Injustice, Negative Emotion, and Rumination by Justice Types

Jaeun Shin

Myoung-Ho Hyun

Jisun Park

Chung-Ang University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injustice, negative emotion, and situational specific rumination between justice conditions of no justice, retributive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Participants(N=55) experienced a supposed economical injustice as victims in the experimental situation. This study concerned how victims respond differently according to justice conditions.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justice condition. Negative emotion and rumination were less responded in restorative condition than other justice condi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restorative justice had positive influence on victim in terms of recovering their negative responses through a communication between victim and offender. The results also suggested that communication including offender's apology played a essential role in victim's restoration in the restorative justice context. Future directions concerning the meaning and possible im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are discussed. In addition,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are followed.

Key words : injustice, retributive justice, restorative justice, negative emotion, rumination